

野,尹담화·회견 놓고 하루 종일 '비판·탄식'

이재명 “흔쾌히 동의할 내용 아니야” 실망 표출 박지원 “심각성 인식 못해”...김원이 “장두노미” 여권 홀로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하게 설명”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놓고 여야 정치권은 7일 하루종일 비판과 탄식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끝내 국민을 저버리고 김건희 여사를 선택했다”며 “140분의 담화와 기자회견은 알맹이 없는 사과, 구질구질한 변명, 구제불능의 오만과 독선으로 넘쳐났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서 그렇게 흔쾌히 동의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평가도 예외 없이 부정적이었다.

박지원 민주당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SNS를 통해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라면서 “불구덩이에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명태균 의혹 해명은 다 거짓말”이라며 “국민의 분노,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라 일개 법무로서 김건희 변호사를 보았을 뿐”이라며 “김건희 대통령, 대변인 윤석열”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국민의 실망은 바다보다 깊고 분노는 태산보다 높다”며 “대통령 직의 임중함을 망각한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 후반기 하산길을 재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향엽 민주당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은 페이스북에 “미 대선



대국민담화·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결과, 국회에서 2025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대통령 부부의 국정농단, 선거 개입 의혹, 경제난 등 엄중한 상황에 비해 우리 대통령은 알맹이 없는 공허한 말씀

만 하셨다”며 “휴”하고 한숨을 쉬었다.

김원이 민주당 국회의원(목포)은 ‘장두노미(藏頭無尾)’란 사자성어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본 소감을 밝혔다.

김 의원은 “장두노미란 머리는 감췄

는데 꼬리는 드러나 있다는 뜻으로 진실 숨기려 하지만 거짓의 실마리가 이미 드러나 보인다는 의미”라며 “타조

나 꿩은 위기에 처하면 도망가다 풀이나 조그만 굴에 자기 대가리만 숨기지만 결국 사냥꾼에 잡힌다”고 꼬집었다.

조국혁신당 황은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마지막 기회 날려버린 윤 대통령, 탄핵밖에는 답이 없다”면서 “탄핵의 필요성만 키운 동문서답! 무도하고 뻔뻔한 정권 끌어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혁신당 김보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을 지켜본 국민들 중 혈압 상승으로 힘드셨던 분도 계셨을 것”이라며 “이런 담화, 이런 회견 뭐하러 하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홀로 윤 대통령의 이날 담화·회견을 엄호했다.

국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여러 가지 논란과 의혹에 대해 진솔한 태도로 설명을 주셨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대통령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계기로 우리 국회도 정쟁을 중단하고 시급한 민생을 보살피고 외교·안보 현안을 챙기는 본연의 일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尹대통령, 트럼프 당선에 “경제 손실 최소화 노력 중”

“북핵 문제 내밀한 논의...한미일 협력 잘 진행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한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우리 국민 경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2기 집권 시 수입 관세 등을 적용해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에 “바이든 정부 때와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미 리스크 헤징(위험 회피·적정 배분)을 위한 준비는 오래됐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도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어쨌든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며 “이제 실제 트럼프 당선인을 직접 만나봐야 하고, 실제 정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밀어붙이는 참모들과 (미국) 정책 우선순위에 먼저 대응해야 해서 정부가 바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언급한

‘슈퍼 관세’에 대해서는 “10~20%의 보편관세를 하게 되면 어느 나라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다”면서도 “만약 중국에 60%에 달하는 슈퍼관세를 붙이면 중국은 국제시장에서 덩그러니 될 텐데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더 문제”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중시하는 트럼프 당선인과의 우정을 어떻게 다져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미국의 여야 상·하원 의원들로부터 트럼프 당선인과 ‘케미’가 맞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별문제 없이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관계를 맺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 측 인사로 빌 헤거티 상원의원,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부 장관, 더그 버즘 노스다코타 주지사 등을 꼽았다.

트럼프 당선인과의 대북 공조에 대

해서는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시절 비핵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큰 실망을 한 것”이라며 “금명간 북한의 핵기술과 역량이 어느 정도 변했는지 보고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보고를 받고 나면 양자회담, 일본 이시바 총리까지 셋이 하든,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그때 더 의미 있는 내밀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과의 전화 통화 내용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연대와 파트너십을 갖자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아마 트럼프 대통령 시기에도 한미일 삼각 협력은 잘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의 조선업이 많이 퇴조했는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씀했다”며 “그래서 ‘우리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민주,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

이재명 민생 행보·메시지로 중도층 공략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출범식을 열어 현재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글로벌 경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질서가 변화를 겪을 가능성이 큰데, 그중

‘미국 우선주의’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전쟁 위기까지 불러오는 바람에 안 좋은 경제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제자문회의 의장은 미래에

방글라데시 문순혁명 활동가들과 간담회

안도걸·조인철·전진숙·정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조인철(광주 서구갑)·전진숙(광주 북구을)·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방글라데시 문순 혁명을 이끈 무스타인 빌라 자히르, 사미아 악타르, 모스퍼쿠르 라흐만 조한 등 3명의 활동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광주 국회의원들은 방글라데시 활동가들로부터 학생들과 시민들

의 투쟁이 담긴 ‘문순 혁명’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5·18민주화운동과 같은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연대를 약속하며 한국 민주화 과정의 정보를 공유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SNS에 “방글라데시에서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 3명을 만났다”며 “국경을 넘

셋대우 시장을 지낸 홍성국 전 의원이 맡았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4일 최태원 SK 그룹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이어, 오는 11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한다.

이 같은 이 대표의 민생-경제 행보와 메시지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실용 노선을 추구해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김진수기자

어 서로의 경험과 비전을 공유하며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주적 변화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인철 의원은 “이들의 희생이 무고하게 끝나지 않도록 오늘의 만남을 잊지 않고 방글라데시와의 지지와 연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방글라데시 문순 혁명은 학생이 주도하는 MZ세대가 올해 8월 세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끄는 권위주의 정부를 무너뜨린 방글라데시 최초의 민주혁명으로 알려져 있다. /김진수기자

파크골프 2코스 지도자과정 **교육생 모집**

- 모집기간: 수시/매월 30명
- 교육접수: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 (매주 2회 이상) →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파크골프장 순회 실습 3회 이상 → 2차 실기시험 18홀 라운딩
- 접수계좌: 농협 351-1286-9685-63 (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010-9163-7897 / Tel. 062-369-0070

파크골프 무료교실 (취미반)

- 남녀노소 누구나 매주 12명 한정 모집
- 왕초보 ~ 골프장 실습(실내 연습장 완비)
- 기본자세·라운딩 실습(실내스크린골프 20개구장)
- 골프채·골프용품구매자 각종 혜택 부여
- ※ 본 연합회 용품 매장 방문 환영, 실내파크골프장(스크린) 운영



상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